

2009년 11월 29일은 필자가 축산정책국에 전보를 받아 근무한지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양계업무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작했으므로 만 20개월이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가금산업은 고기 생산과 알 생산 등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산업에 집중되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부화'에 대하여 검색하면 '학교 앞에서 병아리나, 메추리를 구입했는데 어떤 먹이를 줘야 하는지'와 '밤새 우는데 어

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병아리나 메추리를 기르면 AI에 감염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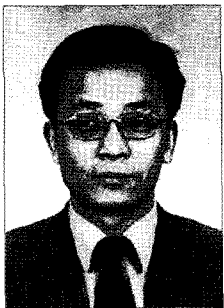
필자는 애완용 가금류 사육에 대한 전문가가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하여 아주 정확한 답변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애완용 병아리 사육이나, 메추리 사육이 많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

한 일부는 인터넷에 부화과정 파일을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이제는 양계산업도 축산물 생산의 목적만이 아닌 애완용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애완용 가금사육이 가능한지를 시험하기 위해 필자가 금년 여름부터 현재까지 시도해 보았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 이제는 애완용 가금 사육도 눈여겨 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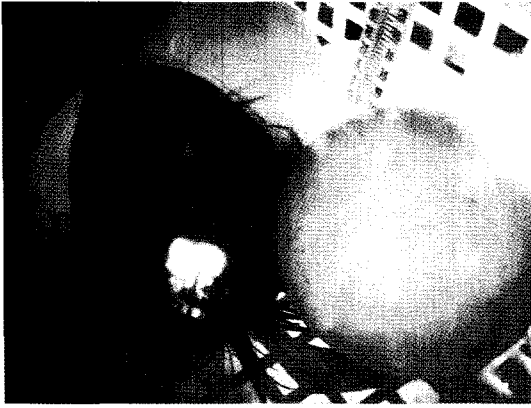


김영만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1. 오리를 부화하여 사육하기

양계산업에 애완시장 접목이 가능한지를 시험하기 위해 계란 두 개를 부화할 수 있는 부화기를 구입했다. 부화기 구입은 비교적 쉬웠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신선한 유정란을 구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지인을 통해 백색오리 유정란을 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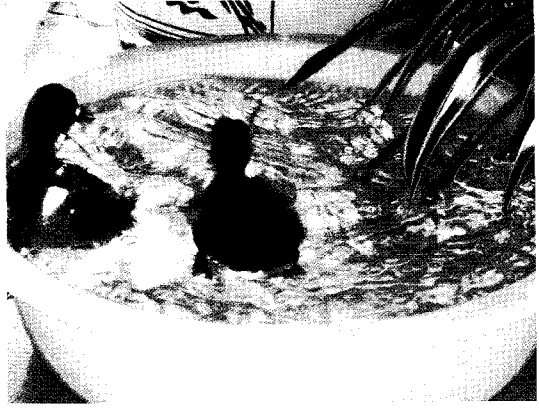
〈사진 1〉 갓 태어난 오리 새끼

부화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란이었다. 우리 아파트단지 이웃집에도 오리 유정란으로 우리와 같이 부화를 시작했는데 전란을 제대로 못해 실패했으나 필자는 다행히 한 마리가 부화되었다.

부화된 오리 새끼를 ‘초롱’이라 이름지었다. 부화된 오리 새끼는 정말 귀여웠다. 사람을 무척 따랐고, 운동장에 데리고 나가면 그 작은 오리 새끼가 열심히 필자 뒤를 쫓아오곤 했다. 그래서 우리집 애들은 학교에 갔다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오리 새끼를 보는 것이었다.

부화한 오리 새끼를 보기 위해 많은 이웃집 애들이 우리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우리집에 오리 새끼를 보러 온 한 아이가 그 위에 넘어져 그 날 저녁 오리 새끼가 멀리 가(사망) 버렸다. 이에 우리집은 초상집이 되었다. 우리집 애들은 너무 슬퍼했다.

우리집 늦둥이(초등학교 1학년)는 학교에 갔다오거나, 갑자기 초롱이가 생각나면 눈



〈사진 2〉 청둥오리 새끼들은 특히 물을 좋아했다.

물을 글썽이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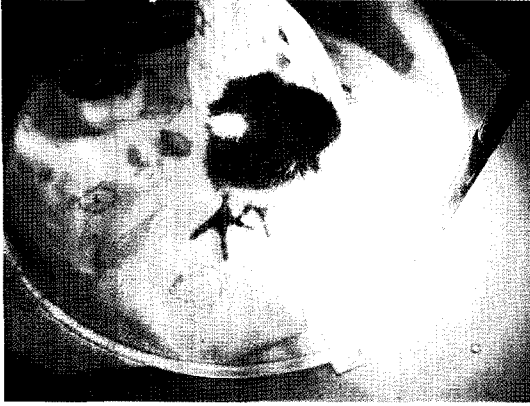
그러나 부모인 필자로서는 감히 또 다시 부화 할 생각을 갖지 못했다. 그런데 초롱이에 대한 그리움은 늦둥이만이 아니었다. 큰 애들은 물론이고 필자 또한 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양도 예쁘고, 환경에 적응을 잘 하는 청둥오리를 부화하기로 하고, 지인을 통해 청둥오리 유정란을 구할 수 있었다.

청둥오리는 백색오리보다 부화가 훨씬 쉬웠다. 두 마리가 부화되었다. 이름은 ‘풀잎’과 ‘이슬’로 지었다.

청둥오리는 기르기가 쉬웠고, 청둥오리 새끼들도 사람을 잘 쫓아 다녔으며, 특히 물을 너무 좋아했다. 먹기도 잘먹고, 배설도 너무 잘했다.

그러나 새끼때는 귀여워서 키우는 것이 재미가 있었지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아파트 베란다 청소를 너무 자주 해야 했다.



(사진 3) 손바닥 안에서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메추리 새끼

60일이 경과한 다음부터는 자기 털을 씻기 위해 조그마한 자기집 월담을 시작했다.

결국 하루에도 몇 번씩 배란다 청소를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청둥오리를 이웃집에 분양했다.

그 후 우리집 늑둥이는 학교에 갔다오면 ‘풀잎’과 ‘이슬’이 보고 싶다고 울곤 했다.

나중에 들은 얘이지만 이웃집에도 청둥오리 새끼 한 마리가 부화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집의 청둥오리 새끼는 그 집 식구들이 너무 귀여워하여 거실에 들어와 배설물을 싸고, 식구들 식사중에 밥상에 뛰어 올라와 먹을 것을 낚아 채곤 했다고 한다.

## 2. 메추리를 부화하여 사육하기

청둥오리 새끼를 찾는 우리집 늑둥이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번에는 몸집이 매우 작은 메추리로 선택했다.

다행히 지인 덕분에 메추리 유정란을 6개 구해서 부화를 시작했으나, 이번에는 전란을 소홀히 하여 1개만이 부화에 성공했다.

메추리 새끼도 역시 사람을 좋아했다. 특히, 메추리는 몸집이 작아 손바닥 안에서 잠자는 것을 좋아했다. 이런 메추리는 온 가족의 사랑을 받았다.

밥 먹는 도중 밥풀 얻어먹는 것을 좋아했으며, 여자 어린이의 머리카락 속에 숨는 것을 좋아했다.

이번에는 메추리가 사고를 쳤다. 메추리 보온을 위해 메추리 집에 부화기를 넣어 두었는데 부화기 속에 물이 들어가 익사를 했다. 이번에도 우리집 늑둥이는 슬픔에 젖었다.

## 3. 지금까지의 경험 정리

지금까지 구입한 조그만 부화기로 직접 부화한 백색오리 새끼와 청둥오리 새끼, 그리고 메추리 새끼를 길러본 결과 오리와 같이 덩치 큰 가금류는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메추리처럼 덩치가 작은 가금류는 충분히 아파트 내에서도 사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어린이들은 동물을 너무 좋아하며, 운동장 등에 데리고 나가면 모든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이는 가금산업이 애완산업과 접목이 가능하다는 증거, 즉 반려동물로서의 사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림 4〉 가족이 닭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

가금류의 애완용 접목은 닭고기 및 계란의 생산, 어린이 교육 및 반려동물로서 즐거움, 경제적 이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소비 촉진, 화학비료·살충제 사용 자제 및 계분 활용 친환경적 야채 생산과 자녀들이 애완동물을 보살피고 책임지는 환경보호 교육 등 자녀 교육과 정서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가금류를 반려동물로 사육시 좋은 점〉

1.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반려동물은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애정을 주고받는 대상이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고,
2. 대부분 가축화된 동물은 경제적 또는 실용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반하

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대가는 그 관계 자체로서가 중요하며,

3. 사람이 동물과 애정을 주고받으며 강한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지만, 그것은 각 개인의 태도와 개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4. 취미 또는 귀농으로 닭 기르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먹거리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로서도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계란을 생산하거나, 고기를 생산하거나, 전시를 위해서나, 혹은 희귀한 종을 보존하기 위해 닭을 키운다.

또한 키우면서 보살피는 즐거움을 느낄뿐더러 닭의 흥미있는 행동을 보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도 닭을 기른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 향수에 빠져 수탉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 닭을 기르는 사람도 있다. 